

지역 소식통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제2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코로나 19로 인한 서민 경제 위기에 정읍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시책 동향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 주체와 특히 복지분야 시설이 겪는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읍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횡단보도 LED 안전등 설치

정읍시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관련해 시는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횡단보도 LED 안전등'을 신규 설치하며 야간보행자 안전확보에 나섰다.

횡단보도 LED안전등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좁아지는 야간에 횡단보도에 조명을 집중해 야간운전자에게는 시인성을 확보하게 하고 보행자에게는 횡단보도 보행 시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게 하는 생명의 장치다.

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어린이교통공원 등 14개소 횡단보도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외래어종 수매

정읍시가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인 블루길(파랑불우럭)과 큰입배스 퇴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수매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수매를 위해 1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시민이 포획한 외래어종을 1kg당 5천 원씩 총 2천kg을 선착순으로 수매한다. 수매사업은 광역매립장(영과길 169)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란기인 5~6월 사이에 포획을 실시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장호 주변 전선 걷어낸다

정읍시, 내장산 조각공원 지중화 사업 2억8000만원 투입 10월까지 공사 마무리... 사계절 관광인프라 구축 팔걸어

정읍시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유진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 공직자들이 내장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혼연일체로 열심히 땀 흘려,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호남의 으뜸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내장호 주변에는 국가생태관광지 월영습지와 솔티숲, 내장산리조트, 문화관광, 단풍생태공원, 대상식물원 등 다양한 관광·휴양시설과 공간을

마련하며 사계절 관광지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내장호는 내장산관광특구의 중앙에 위치한 호수로 자연적인 아름다움과 생태공원 등 꾸밈의 아름다움이 빼어나게 어우러진 곳이다.

2019년에는 내장산조각공원에 10m 높이의 내장생태탐방 마루길이 조성되어 앞으로는 내장호를, 뒤로는 내장산을 조망할 수 있는 풍광의 명소로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곳곳의 전선주와 치렁치렁한 전선들 때문에 내장호 주변의 수

려한 경관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유진섭 시장은 내장산 관광의 육에 티인 전선주를 없애기 위해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전복대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통신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내장산조각공원의 하늘 경관 개선을 위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2억8천만 원이 소요되며 정읍시와 한전, 통신사 등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투입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내장호와 조각공원 사이를 가로질러 설치된 약 250m 구간의 전선주와 전선이 지척을 감추게 된다. 이를 통해 내장산국립공원과 국가생태관광지 월영습지, 솔티숲을 찾는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확 트인 내장호의 모습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해 육에 티를 걷어내고 나면 안전은 물론이고 더욱 아름다운 내장호 주변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월의 내장호는 가장자리에 드넓게 퍼진 버드나무군락의 새싹들이 연두 불빛을 녹아내고, 해질녘에는 내장산 서래봉과 불출봉이 담긴 아름다운 화폭이 되는 보물을 숨기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내장산조각공원의 하늘 경관 개선을 위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함께 해줘서 감사"

사랑의열매, 고창군에 감사패

지난 겨울 각계각층의 자랑스런 고창군민들의 뜨거운 이웃사랑 열기를 보여줬던 고창군이 사랑의 열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21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김동수 회장이 유기상 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동수 회장은 "고창군의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만들기 군민운동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고창군은 '희망2020 나눔캠페인(2019년 11월20일~2020년 1월31일, 73일간)'을 펼쳐 4억310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이는 지난해(3억9400만원) 대비 10.9%증가로 전북도 14개 시·군

중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전라북도 시군단위에서 최초로 사랑의 온도탑 설치, 고창의 기부천사를 위한 명예의 전당 설치 등 나눔 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로 매년 1000만원 이상 기부하는 나눔리더,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한 어린이집, 익명의 천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계각층의 성금전달이 잇따르면서 사랑의온도가 100도를 훌쩍 넘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어려운 경계에도 이웃 사랑에 많은 관심을 주신 단체, 기업 및 군민분들의 사랑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 공동모금회로부터 이웃돕기 캠페인 1위 달성으로 고창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지원금액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김동수 회장이 유기상 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억5600만원을 별도로 배정받아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월동난방비 및 각종 긴급지원 사업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작물 저온피해 최소화 집중"

권익현 부안군수, 주요 간부회의서... 코로나19 방역 철저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권 군수는 최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겨울철 고온, 봄철 이상저온 등 기후변화와 병충해 같은 농작업 변수들로 인해 영농기술지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배시기와 각각의 현장에 맞는 농작물 관리요령 등 영농지도에 철저를 기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줄었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 우려는 여전하므로 방심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함께 해외입국자가격리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자"



고 말했다. 특히 권 군수는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을 잘 살펴 군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권 군수는 "자기 업무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습득이 있어야만 사업이나 공모,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히 판단하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며 "자기 업무와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공의 정보와 주요 동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

정읍역 광장에 LED 전광판 설치 홍보

축제·관광명소 등정보제공

정읍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공의 정보와 주요 동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

기존 정읍역 광장에서 운영하던 정읍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지난해 11월 정읍역사 내 2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정읍역 북쪽 광장에 전광판을 신규 설치한 것이다.

전광판은 기존의 전광판보다 높은 해상도로 먼 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게 대형(5.4m*3.2m)으로 제작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며, 시정 홍보를 비롯한 지역의 대표축제, 관광지원, 주요 관광명소

등을 홍보한다.

또한, 각종 교통·생활 정보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등의 재난 안전 대책 관련 대민 홍보에도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정읍역 인근에 설치된 만큼 시정 사항을 신속하게 표출해 대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관광 홍보 및 재난 전광판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연중 수시 운영해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